

등록번호	교육지원과-13813
등록일자	2015. 12. 22.
결재일자	2015. 12. 24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교육기획팀장	교육지원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
김효진	안지호	김판덕	이경현	12/24 조인동
협 조				

2015 서대문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결과 보고



서 대 문 구
교육지원과

2015 서대문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결과 보고

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15년 서대문구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

I 개최개요

- 일 시 : 2015. 12. 14.(월) 15:00
- 장 소 :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
- 참석인원 : 11명
- 진행순서

시 간	내 용
15:00~15:05 5분	· 개회(사회자)
15:05~15:10 5분	·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(주민자치국 국장)
15:10~15:25 15분	· 위원 소개(사회자)
15:25~15:35 10분	· 인사말씀(주민자치국 국장)
15:35~15:55 20분	· 사업보고 (담당)
15:55~16:55 60분	· 정책제안(위원)
16:55~17:00 -	· 폐회

■ 회의안건

- 2016년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

II

회의결과

■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

연번	이름	의견 내용
1	윤신덕 (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규모 학교폭력예방교육보다 학급단위의 교육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도 학급단위의 교육 및 강사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- 학교폭력피해발생의 양적감소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피해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
2	석정훈 (서대문경찰서 청소년과 계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니모 멘토링도 운영하고 있지만 타구에 비해 학교폭력피해율이 높지 않음 - 금천구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연합축제와 같이 서대문구 청소년문화한마당이 개최되는데 여러 기관과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요청 - 언어폭력 피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반영할 계획
3	황인국 (서대문구 청소년수련관 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회성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그 효과가 미비하여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- 학교폭력피해건수가 감소추세라고는 하나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바로는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음. 따라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학교 선생님,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책으로도 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길 바람 - 자치구와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전문기관들까지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테이블이 필요함 -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정리하여 모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내부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그리고 자치구가 연계되어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 -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자치구에서는 여러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람

연번	이름	의견 내용
4	김판덕 (교육지원과 과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의 역할은 행정적/재정적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피해발생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. 학교 내부적으로 문제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오픈하여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
5	이시영 (연희초등학교 교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의 비의도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처벌을 하기 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. 피해학생 측의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중간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음 - 가해 학생들은 보통 '장난'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라서 장난으로 하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봄
6	이영희 (사단법인 탁틴내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가 여러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되 학교별 피해발생률을 살피어 학교폭력문제에 취약한 학교에 포커스를 맞추어 지원할 필요가 있음 -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/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당 담당교사와 해당 학교 교감 및 교장선생님까지도 교육 지원이 필요 - 학교폭력, 성폭력, 인권 모두 각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
7	이경현 (서대문구 주민자치국 국장)	<p>논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회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신년 초에 각 기관의 사업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수합하여 협조 및 지원 사항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신년 사업방향 보고회 자리를 마련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</p>

■ 2015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사진



Ⅲ 검토사항

■ 사안별 검토의견

- 학교폭력 실태에 따른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필요
 - ☞ 언어폭력피해율의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에 반영
학교 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
-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필요
 - ☞ 현장 실무자, 관계 전문가, 학부모들이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관계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온/오프 네트워크 개설 및 협의회 개최
- 관내 학교폭력피해사례 공유화 필요
 - ☞ 학교 내부의 피해 사례가 교육청과 자치구에 공유되어 긴급지원 및 관리 가능한 시스템 형성
-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사교육 및 대처방안 매뉴얼화 필요
 - ☞ 가/피해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 및 내부적 공유 유도
해당학교 교감·교장선생님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병행
-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 기관의 사업계획 공유 및 협조 필요
 - ☞ 신년 사업계획보고회 개최를 통해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(연차별·단계별) 방안 모색

IV

향후계획

- 관내 학교폭력 예방 사업 공유를 위한 교육지원청-학교-전문기관-서대문구청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피해사례 공유 및 피해발생 학교별 통합적 지원·관리 시스템 형성
- 신년 사업계획보고회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기관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지원청과 자치구가 행정적/재정적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실행

붙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명단 1부. 끝.